

“홀로 남은 아들 걱정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.”

..지적장애 아들을 키우는 노부부의 이야기..

여든이 넘는 노부부는 막내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.

늦둥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받던 막내아들 박영일(가명)님은 30여년 전, 당시 나이 4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. 오랜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박영일님의 지적성장은 4살에서 멈춰 버렸습니다. 현재 지적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동도 불편해 늘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.

부부는 그렇게 평생을 장애를 얻은 막내아들을 돌봤습니다.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들이기에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어려워 부부의 생활을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.

요즘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아들 걱정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. 부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박영일님의 간병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의
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